

전문가 코칭

안전과 윤리경영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Q1. 안전과 윤리,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윤리와 안전은 별개의 요소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윤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는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한 원인입니다. 기업이 이윤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경영, 윤리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는 물론 구성원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보편화 될 때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기업들도 안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 일터에서는 매일 5명이 일 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도 하루 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안전을 문화로 확산해야 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일하기 전에 위험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활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문화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감대가 생기고, 이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실천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문화가 됩니다. 안전을 문화로 확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더디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안전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절차를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일. 작은 것 같지만 일터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화학업계

우리나라는 화학제품 출하액 기준 세계 6위의 화학 제품 생산국이며, 화학산업은 국가경제의 대표적인 기간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산업은 복잡한 장치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잠재위험성이 크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와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안전과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이슈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는 기존 화학물질은 약 4만 4천여 종에 달하며, 매년 400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노출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은 유독성과 폭발성으로 인해 그 취급에 있어 매우 큰 주의를 요구한다. 많은 화학기업들이 안전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에 밀려 작업장 안전이 등한시 되기도 하며 결국 이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 및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독물질 대량 취급 업소가 3,000여 곳이나 되고, 울산·여천·대산 등 전국의 화학단지에는 40년이 넘는 노후 설비가 준비한 것이 현실이다.

[사례]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2년 구미4공단에서는 화물차 탱크로리에서 야외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밸브가 열려 12톤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직원 7명 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불산이라는 가스의 정체를 모른 채 열려진 밸브를 찾기 위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또한,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주민피해가 1만 2천명, 농작물 고사가 212헥타르, 차량 부식 피해가 1,958대, 가축피해가 3,943마리에 달했다.



2012년 9월27일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 피해현황_국무총리실©일과건강

◎ 이슈 2. 'Responsible Care Program'

'Responsible Care'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화학업체들이 환경·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화학산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경제적인 기여 외에도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전 세계의 화학업계의 내부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인도 보팔사건 이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전체 화학산업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산업 전반에 형성되었고 1985년 'Responsible Care'가 시작되었다.

보팔사건

1984년 한밤중에 인도 보팔시 외곽의 유니온카바이드사 공장에서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폭발했다. 농약 원료로 사용되는 메틸이소시아염(MIC)이 약 2시간 동안 36t가량 누출됐을 뿐이지만 인명피해를 정확히 집계할 수조차 없을 만큼 결과는 끔찍했다. 약 3만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고 현장은 방치되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세에게 기형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후 1990년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А)에서 Responsible Care의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를 결성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2013년 기준 전 세계 57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속 화학업체들은 2009년 기준 세계 화학산업 매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정식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국내 65개의 주요 화학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 이슈 3. 화학업체들의 친환경 노력

화학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 이러한 오염들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업체들은 친환경 설비운용, 환경정화활동 등과 같이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학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로, 제품 생산 과정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의 소모를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화학업계는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이 경감된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사례] 글로벌 화학기업의 환경을 위한 노력

미국의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딱지를 떼고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우케미칼은 1995년 미국 텍사스주 시드리프트에 있는 공장에 하수처리 설비를 확충해야 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4,000만 달러를 들여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야 했지만, 다우케미칼은 하수 처리장 대신 공장 옆에 습지를 만들었다. 해당 습지는 모든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루에 약 1,900만 리터의 물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 동식물에 서식지를 제공했으며 습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140만 달러에 불과했다. 다우케미칼은 습지 프로젝트를 통해 2억8,200만 달러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TNC/사이언스북스 제공

다우케미칼은 2011년에는 미국 최대 환경단체인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TNC)와 파트너십을 맺고 텍사스주 프리포트 산업단지에서 숲 가꾸기, 담수 공급 관리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 국내 화학업체의 환경을 위한 노력

국내 A업체는 2014년 '기후변화경쟁력지수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에서 석유화학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상이다. A사는 중화학 업종 특성상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높은 사업임을 사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조기 감축 활동과 에너지절약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실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사는 2010년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SAP기반의 GEMS(Greenhouse Gas &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과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관련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여 비용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네트워크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하여 탄소정보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 **결어**

이처럼 화학업계는 화학산업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사항들이 생산성에 밀려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노후된 설비와 안전 교육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안전한 화학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일선 현장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한국RC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rcc.or.kr/2013/app/>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8/2015091801965.html
<http://www.vop.co.kr/A00000934783.html>
<http://www.hankyung.com/news/realtime/index.php?aid=2015080664691&sid=>

동향&소식

최근 윤리경영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다국적기업에 세금 매기는 '구글세' 빠르면 2017년 국내도입

정보기술(IT) 등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위 '구글세'가 빠르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오는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관련 내용을 내년 8월까지 계획된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제 세금부과는 이듬해 발생하는 매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구글, 스타벅스, 루이비통 등 국내에서 돈을 벌지만 로열티, 자문료, 이자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자본을 이전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도 과세를 위해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9161443107865>

국내기업 21곳,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편입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평가결과 글로벌 2,495개 평가대상 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등 국내 기업 21곳을 포함한 전 세계 317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과 향상을 보인 산업은 전자부품, 장비 산업 및 운수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및 장비 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 평가점이 23.5% 향상됐으며, 운수 산업은 18.2% 향상됐다. 반면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개인용품 산업 평가점은 각각 -6.8%, -6.0%씩 하락하여 상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와 윤리경영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 비해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50910000332>

50인 미만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의무 실시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5~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할 의무가 없었지만,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데다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도 터널, 굴착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8191743102455>

해외 윤리경영 동향

제70차 유엔총회 개막...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채택

제70차 유엔총회가 9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됐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 정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되며 이들 정상 및 정부 수반은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오는 2016년부터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목표인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다. SDGs는 세계인의 가난 탈출과 배고픔 해소, 건강한 삶 보장,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 이상의 세부 목표가 설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회원국들 간의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되어 2016년 3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0916004400340&input=1196m>

일본, 사외이사 10명 중 1명이 여성

경영인재 소개 업체 프로넷에 따르면 일본에서 여성의 사외이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증권거래소 1 부에 상장된 1,900 개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수가 343 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사외이사 3,584 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를 차지했다. 변호사인 여성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수이거나 정부 기관 출신인 이들도 60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부감사에서도 여성 채용이 증가하여 여성 외부 감사의 숫자는 186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여성 사외이사가 3 명 이상인 기업은 브릿지스톤(4 명), 로손(4 명), 카루비(3 명) 등 9 개사로 나타났다. 프로넷 측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여성을 임원으로 기용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1656406609498480&DCD=A00805&OutLnkChk=Y>

포춘, 'Change the World' 리스트 발표

미국의 경제지 포춘(Fortune)은 'Change the world' 리스트를 발표했다. 'Change the World'는 급박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혁신 기업들의 리스트이며, 복잡한 사회적,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거대한 혁신을 일으킨 상위 50 개 기업들을 소개했다. 'Change the World' 기업 선발은 기업 혁신 참여도, 측정 가능한 사회적 임팩트, 기업 수익과 경쟁적 이점에 대한 공유가치 활동의 기여, 그리고 비즈니스 전반에 공유가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4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회혁신과 비즈니스 기회를 연관시켜 기업 경쟁력을 활용한 'Change the World' 리스트의 주요 선두 기업들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시멕스, Waste Management 등이 선정되었다.

출처 <http://swwire.co.kr/archives/15710>

탄소규제강화 대비 기업 수 세 배로 증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의 잠재적 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기업들의 수가 세 배로 급증했다. 오는 12 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를 계기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상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환경정보업체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는 이날 미국 자동차업체인 제네럴모터스(GM),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광산업체 글렌코어,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 등 전 세계 437 개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탄소 가격책정(Carbon pricing)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50 개사 대비 약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40 개국 20 개 이상의 도시, 또는 지역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 지출을 강제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유럽에서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형성됐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 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 규모를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92109570681286&MM>

행사 이모저모

행사 브리핑

◎ 행사 이모저모

제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전KDN, 사학연금, 전력거래소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반부패 자율협력 실천 연대를 구성하고, 청렴의지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나주시와 손잡고 '제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9월 14일부터 4일간 개최하였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개최된 이번 청렴문화제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연극 '남 탓' 공연과 청렴영화 상영, 청렴문화 전시회, 초등학생 청렴부채만들기,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 참여형 행사를 선보였으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청렴'이라는 화두를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접목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은 개막식에서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던 청렴정책을 지역주민과 교감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번 청렴 문화제를 통해 각 기관 간 반부패, 윤리경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관 청렴도는 물론 깨끗하고 신뢰받는 사회 풍토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 개최될 제2회 빛가람 청렴문화제에는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가 동참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BSI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개최



BSI가 주최하는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가 9월 15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BSI 반부패 원탁회의: UK Bribery Act, FCPA, 청탁금지법과 BS 10500”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약 7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의 반부패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미국 FCPA, 영국 뇌물법과 청탁금지법은 모두 직원의 위법행위 시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은 면책을 위해 법에 명시된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절차(영국 뇌물법 제7조 2항)’의 시행 사실을 입증하거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청탁금지법)’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 경영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려는 조직이 참고할 수 있도록 뇌물방지법 이행지침(The Bribery Act 2010 Guidance)이 존재하며, 이에 더하여 추가적이고 상세한 시스템 수립의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경영시스템 표준인 BS 10500이 제정되어 관련 기업과 정부 조직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반부패법 확대 동향과 표준의 역할, UN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의 원칙, 부패관련 법적 제재 및 대응사례, 그리고 그간 BSI가 국내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BSI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반부패경영시스템 시범사업과 인증제도, 교육, 정기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반부패 라운드테이블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부패경영 확산과 시스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외 행사

2015 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 혁신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하여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개최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사회공헌연구원
- 일시 : 2015년 10월 1일(월) ~ 11월 26일(목)
- 장소 :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2015 EHS Management Forum

환경, 보건, 안전 분야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포럼이며, 베스트프랙티스 공유, 강연 등을 통해 사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

- 주최 : NAEM
- 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 ~ 15일(목)
- 장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출처: <http://www.triplepundit.com/event/2015-ehs-management-forum/>

제6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UN반부패협약*과 관련, 이행 현황 공유와 점검체계 개선을 위해 개최.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성보)이 기조 연설자로 참석하여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주요 협약 이행 진전사항을 소개할 예정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러시아 정부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 6일(금)
- 장소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참석 : 177개 당사국 및 비비준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약 1,500명

* UN반부패협약('03.10월) : 산재해 있는 반부패 국제협약을 UN총회가 통합하여 만든 최초의 국제규범(한국은 '08.2월 비준)

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리포트

독일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와 정책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도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기업 풍토를 일구어 왔다.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독일정부는 1976년 세계 최초로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옮길 정도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파트너 의식과 이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정착되어 있다('독일의 기업윤리', 김성국).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독일의 윤리경영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공동결정법

1976년 제정된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감독이사회에 노사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게 한다. 원칙적으로는 상시 2,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광산법상의 광산조합, 협동조합 등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독일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근로자 2,000명 이상임을 고려하여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독일 주식회사가 공동결정법에 의해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갖추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노동자가 경영진과 동등하게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없는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Deutsche Telekom의 노사동수 감독이사회

공동결정제도는 노사가 협력하여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경영진과 근로자 관계를 협력관계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노사동수로 구성된 감독기관에 의하여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가하여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가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정신적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기업 내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2001년 9월 독일 법무장관은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를 지명하고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 2월 정부위원회는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였다. 동 모범규준은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 및 감독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국제적·국내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이 적용대상이나, 비상장기업도 본 모범규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상충 및 기업정보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 기업의 이원적 이사회>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법적으로 주주총회,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의 삼두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경영이사회
일상적인 업무와 법률적인 문제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며,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채권자, 일반 국민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독이사회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의 장기적 전략이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처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받는다. 종업원 대표가 주주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정부는 윤리경영의 보급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2004년 독일정부는 재무보고개혁법(BilReG)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여 연례 사업보고서에 비재무적 성과지표도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 의무 이행은 사회발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표에만 해당되고, 기업에게 정기적인 비재무적 정보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2005년에는 연금법을 개정해 연금펀드 및 기금을 투자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윤리·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했는지 공시하게 했다.

<독일의 윤리기업 사례 - 바이엘 사>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화학기업인 바이엘 사는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바이엘 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고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건강한 삶과 생명연장에 대한 꿈,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 자원 및 수자원 보호 그리고 기후 보호 등 이 시대의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Energy Efficiency Check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기술 시스템으로,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여 세계 전반에 걸쳐 100여 개의 생산 시설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화학산업의 기본 원료인 염소의 전기 집약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0% 가량 감축했다.

Family Planning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Family Planning'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모자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부 조직, NGO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다. 에디오피아에서 첫 활동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아프리카 10개국과도 협력을 맺고 있다. 또한, WHO와도 협력하여 아프리카 수면병과 결핵 등의 질병 퇴치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바이엘 사가 생산한 치료제를 지원하고 있다.

Food Chain Partnership

농민과 식품업계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식량의 질을 높여 농민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Food Chain Partnership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세계 40개국에서 바이엘 사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 증가 (Stress-tolerant)에 대해 연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및 저온현상이나 가뭄과 같은 기후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동시에 수확량을 최대화하는 활동을 하여 글로벌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CSR Action Plan

독일정부는 2009년 노동부 산하에 CSR 포럼을 설립했다. 각계의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포럼은 국가 차원의 CSR 지원 정책을 자문한다. CSR 포럼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여러 소견서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10년 10월 국가 차원의 'CSR 액션플랜(Action Plan)' 도입을 결정했다. 도덕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CSR을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끌어올린데 의의가 있다. 'CSR 액션플랜'의 세부 계획으로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립,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향상 등을 명시했다. 2010년에는 CSR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 'CSR-made in Germany'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CSR - Made in Germany>



독일연방정부는 제품의 품질 인증으로 자리 잡게 된 슬로건 'Made in Germany'를 CSR과 연계하여 'CSR-Made in Germany'로 확대보급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21세기 글로벌세계의 핵심 도전과제 성취를 위한 대책' 관련 초안을 마련하여, 우수 CSR 기업에 'CSR-Made in Germany' 마크를 부여하여 공공 입찰 및 구매과정에서 우대하고 있다. 연간 3,600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공공조달규모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혁신기술 개발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 결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독일은 공동결정법을 통해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게 하고, 지배구조 모범기준을 통해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비재무적 성과를 공개하게 하고 기관투자대상 기업의 윤리경영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을 위한 법적인 기반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풍토를 통해 독일 기업들은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독일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독일의 기업윤리 : 이론과 실제' (기업윤리연구 제4집, 김성국)

<http://www.acrc.go.kr/acrc/ethics/200811/16.pdf>

http://blog.naver.com/cto_hwangga?Redirect=Log&logNo=220302020969

http://www.cgs.or.kr/main/CGS_mainEBookIdx.asp?rPType=REV&rDType=LIST&rNo=8&rPDF=C200304005

<http://srwire.co.kr/archives/10944>

윤리경영 스테디.

윤리경영 스테디

세대간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차이

직장 내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각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 설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윤리경영 연구기관인 IBE의 'Business Ethics across Generations'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는 세대 간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조직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직장 내 세대 구성

OECD에 따르면, 영국의 65~69세 근로자가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3%에서 2013년 20%로 상승했다.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이미 미국 노동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노동인구의 50%를 밀레니엄 세대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대 구분

- 전통세대 : 1922-1945년 사이 출생한 세대
- 베이비붐세대 : 1946-1964년 사이 출생한 세대
- X 세대 : 1965-1982년 사이 출생한 세대
- 밀레니엄 세대 : 1983-2004년 사이 출생한 세대

이처럼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은 하나의 윤리경영 정책을 채택하기 보다는, 각 세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보다는 기존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천천히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세대별 특징

전통세대 - Hard work in hard times

전통세대는 2차 세계대전 등 정치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거쳤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재정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직하기 보다는 한 군데의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크에 대해 회피적이며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세대가 명령하고 컨트롤 하는 리더십을 형성하게 하며, 공식문서와 대면보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게 한다.

베이비붐 세대 - Live to work

베이비붐 세대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급변하던 시대를 거쳤다. 일은 개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긴 근속기간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기 보다는 일에 대한 전념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성장, 보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선호한다.

X 세대 - Work to live

X세대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거쳤다. 이혼이 보편화 됨에 따라 기존의 가족제도가 변화했으며 정치경제적 상황은 불안정 했다. 그 결과 X세대는 독립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그 이전 세대들에 비해 적응력이 더 뛰어나게 되었다. 또한 냉소적인 태도와 권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각종 매체를 접하여 윤리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 - Digital natives

밀레니엄 세대는 전자제품,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소비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 유연한 근무환경을 중요시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이처럼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은 하나의 윤리경영 정책을 채택하기 보다는, 각 세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보다는 기존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천천히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세대별 특징

전통세대 - Hard work in hard times

전통세대는 2차 세계대전 등 정치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거쳤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재정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직하기 보다는 한 군데의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크에 대해 회피적이며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세대가 명령하고 컨트롤 하는 리더십을 형성하게 하며, 공식문서와 대면보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게 한다.

베이비붐 세대 - Live to work

베이비붐 세대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급변하던 시대를 거쳤다. 일은 개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긴 근속기간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기 보다는 일에 대한 전념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성장, 보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선호한다.

X 세대 - Work to live

X세대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거쳤다. 이혼이 보편화 됨에 따라 기존의 가족제도가 변화했으며 정치경제적 상황은 불안정 했다. 그 결과 X세대는 독립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그 이전 세대들에 비해 적응력이 더 뛰어나게 되었다. 또한 냉소적인 태도와 권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각종 매체를 접하여 윤리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 - Digital natives

밀레니엄 세대는 전자제품,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소비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 윤리경영에 대한 성향

2013년 Ethics Resource Center는 2011년에 시행했던 National Business Ethics Survey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세대간 윤리의식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Ethics officer 제도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가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세대의 경우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모른 척 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12%에 불과했다(밀레니엄 세대 : 35%). 또한 전통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공식적인 윤리 프로그램에 다른 세대보다 높은 반응도를 보였고 기업의 윤리기준 이해와 시스템, 절차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의 경우 업무 일선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더 자주 목격하지만, 이를 신고하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회사의 윤리담당 부서가 제공하는 훈련, 신고라인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아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의 IBE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의미있는 업무를 선호했으며, 다른 세대에 비해 윤리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회사에 부정적인 내용 작성', '사적으로 회사자원을 사소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윤리강령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전통세대는 제일 관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며, 밀레니엄 세대는 이러한 행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의 비율이 많았다.

< 세대간 윤리의식 차이 -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허용도 >

행동	전통	베이비붐	X 세대	밀레니엄
회사에 부정적인 내용의 블로그/트위터	14%	9%	5%	1%
회사 기밀서류의 복사본 보관	22%	18%	13%	8%
고객과의 SNS 친구관계 추가	36%	32%	24%	15%
경쟁사 조사 위한 SNS 사용	37%	34%	27%	9%
회사네트워크에 사적인 사진 업로드	26%	19%	15%	10%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개인적 사용 위한 복사	13%	11%	5%	8%

◎ 각 세대에 윤리경영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

밀레니엄 세대

-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을 친근한 방법으로 소통
- 밀레니엄 세대와 가까운 동료, 중간관리자를 통해 메시지 전달
- 사내 윤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
- 밀레니엄 세대가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과 기준에 참여하도록 기회부여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고할 경우, 그 조사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신고자와 공유

X-세대

- 회사의 윤리기준과 조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윤리문제에 대한 상담가를 배치하고 이를 홍보

전통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

-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원칙을 강조
- 경영진 등 윗선을 통한 메시지 전달
- 윤리프로그램이 잘 확립되어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
- 전통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 마련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고할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고 조사에 대해 정보제공

◎ 세대간 차이 극복을 위한 사례

National Grid

에너지 업체인 National Grid는 자사의 기업문화가 40~60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세대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가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착안하여 자사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홍보에 투자하였다. 각 학교에서 과학, 공학, 수학 및 기술 커리어에 대한 교육 활동을 펼침으로써 윤리적 노력을 증명하여 젊은 세대의 회사 지원을 이끌어 냈다.

Diageo

글로벌 주류업체인 Diageo사는 임직원들과 회사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사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Yammer'를 이용했다. 회사의 윤리적 가치가 임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소통했으며, 이를 통해 사내 각 세대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세대에 적합한 소통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목표에 대한 각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Sodexo UK & Ireland

글로벌 식품가공 및 서비스제공 업체인 Sodexo사의 프로젝트는 20-30대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사내의 세대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대간 대화를 촉진하는 게임, 월급명세서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전적인 지원을 받은 임직원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졌다. 해당 프로젝트 이후에 이루어진 사내 설문조사 결과, 회사가 사내 세대간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자가 78%에 달했다.

◎ 결어

이처럼 각 세대들은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영국 및 미국의 조사결과를 국내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각 기업들은 이러한 각 세대들의 특징과 니즈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구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각 연령 그룹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세대들이 지닌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각각 기업의 윤리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간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 사내 윤리문화 확립과 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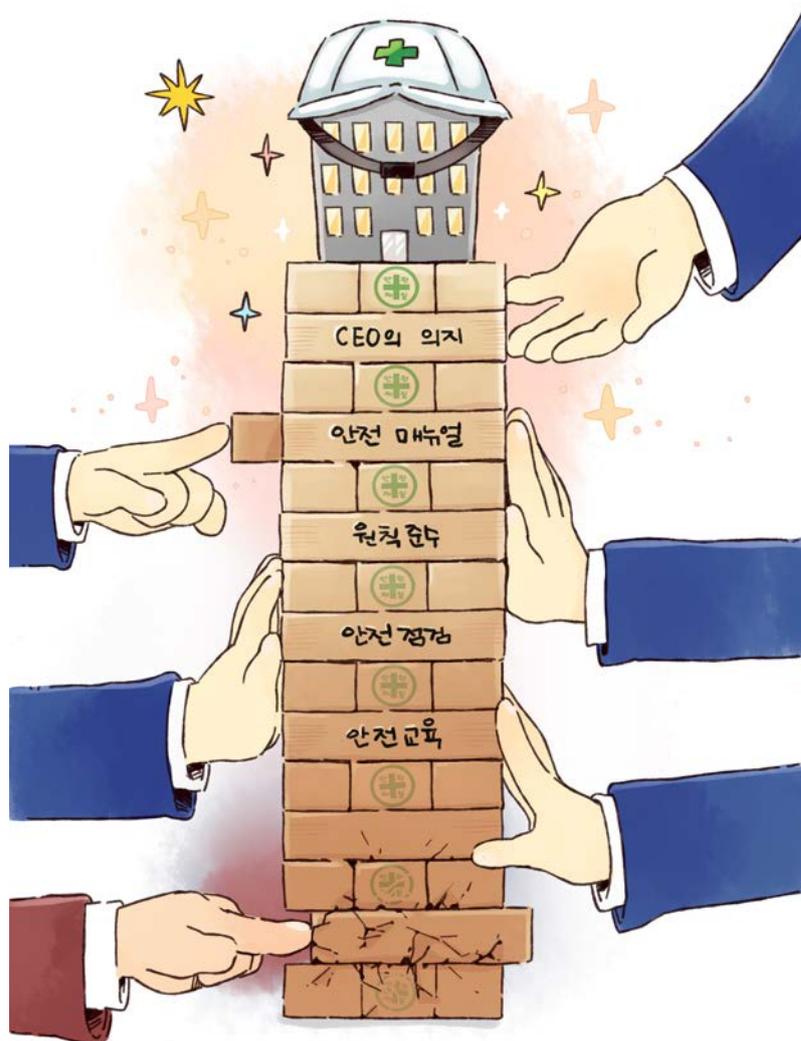
*출처

Business Ethics across Generations, Business Ethics Briefing, IBE, 2015

<http://www.bitc.org.uk/blog/post/harnessing-power-age-diversity-and-adapting-business-ageing-workforce>

감성메세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일, 안전경영과 윤리경영의 공통분모입니다.”



One Point Lesson

Q. 요즘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OHSAS 18001'에 관한 언급을 보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OHSAS는 직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전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활동을 최고 경영자와 모든 조직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원의 안전, 보건과 건강을 지킴으로써, 기업의 이윤창출과 조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OHSAS 18001은 표준규격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LRQA를 비롯한 인증기관과 영국표준협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1999년 수립된 인증심사 규격이며, ISO 9001, ISO 14001과의 병용성을 고려해 제정되었습니다.

[참고] OHSAS 18001 관련 인증

BS 8800

BS 8800은 안전보건 가이드 규격을 말합니다. 영국 안전보건청의 연구결과, 모든 사고의 70% 이상이 관리적 조치(Management Action)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수립에 착수하여 1996년 최초로 발행하였습니다.

OHSAS 18002

OHSAS 18002는 가이드 문서로, OHSAS 18001 규격의 각 요건들이 의도하는 방향, 특정 입력사항, 프로세스, 특정 출력사항 등을 명시함에 따라, 모든 인증기관들이 각 요건을 동일하게 해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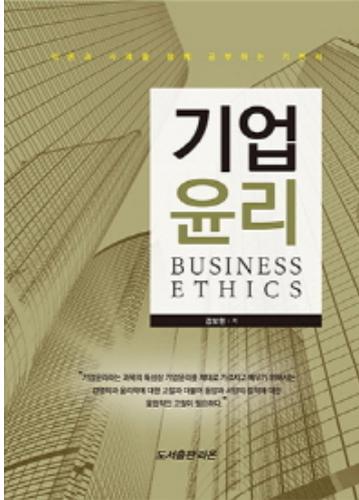
*참고

http://m.kita.net/mobileNew/info/manual/view.jsp?nboardidx=5&nindex=75153&tabnum=2&n_dirid=1&n_subdirid=34

이달의 책

서적 리뷰

기업윤리 - 이론과 사례를 함께 공부하는 기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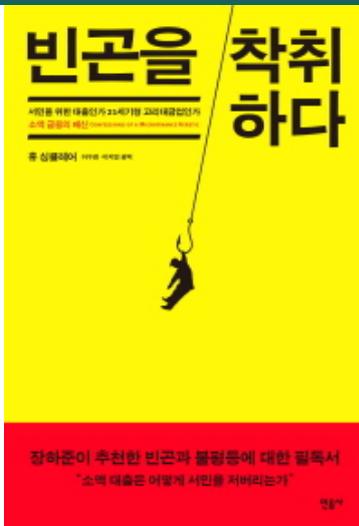


저자: 강보현
출판: 라온
출판일: 2015. 9. 1
정가: 25,000

『기업윤리』는 기업윤리를 이론과 사례 바탕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더불어 동서양의 철학에 대한 융합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대학교에서 기업윤리를 강의하면서 Andrew W. Ghillyer의 Business Ethics: A Real World Approach (2010)와 Business Ethics Now (2012), Joseph DesJardins의 An Introduction to Business Ethics (2014)를 교재로 사용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빈곤을 착취하다 - 소액금융의 배신



저자: 휴 싱클레어
출판: 민음사
출판일: 2015. 9. 7
정가: 19,000

'소액 금융'은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미명하에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자금을 끌어와 빈곤층이 소규모 사업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리에 소액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전 세계를 누비며 소액 금융 업계에 10년 이상 몸담았던 저자 휴 싱클레어는 많은 소액 대출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투자라는 외양만 덧입었을 뿐, 실상은 가난한 이들을 약탈하는 대부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텔레비전에서 전하는 뉴스 이면의 진실을 밝히며, 목적을 잃어버린 소액 금융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서 나아가 지구촌의 빈곤과 불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윤리경영 워크숍 및 청렴정책전수과정 안내

기업에 공공부문의 우수한 반부패정책을 소개하고, 윤리경영 관계자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기업윤리 워크숍 및 청렴정책 전수과정」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장소 서울역 대회의실

대상 기업 윤리경영 및 대관 업무 담당자, 학계, 연구단체 관계자 등
*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

(gukmin@korea.kr, 044-200-7166, 7167)